

四象人 針穴 선택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十二正經을 중심으로)

조황성

조한의원

Abstract

Approach in Selecting Four Constitutional Acupuncture

Cho Hwang-Sung

Cho Oriental Medicine Clinic

1. Objectives

Scarcely referred except for a few phrases of the acupuncture of Dongmugong. He stated every disease could be cured through acupuncture. In addition, generally there are a certain point (hyul- 穴) of the body that suit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s, and just as there are a theory that ascend-descend-loosen-tighten(升降緩束) as therapy of the symptom has the same. However, he did not indicate the concrete method of the four constitutional acupuncture. He only asked his descendants to study about it.

2. Methods

Therefore, author of the thesis tries to describe the theory approach to the selective method of four constitutional acupuncture point based on 『Dongyi Suse Bowon(東醫壽世保元)』

3. Results and Conclusions

The author of the thesis recommended the methods to apply twelve channels to sasangin's disease and symptoms according to the ascend(升)-descend(降)-loosen(緩)-tighten(束)

Key Words : sasangin, twelve channels, acupuncture, ascend-descend-loosen-tighten(升降緩束)

I. 서론

針에 대한 東武公의 의견은 『東醫壽世保元』全篇을 통하여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少陰人 泛論』末尾에 “少陰人 中氣病 舌卷不語 有醫 針合谷穴而 其效如神”¹⁾이라 하여 中氣病을 用藥대신에 針으로 速效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대개 針穴에도 太少陰陽 四象人에 따라 응용되는 穴이 있고 證의 응용에도 升降緩束의 妙가 있듯이 穴의 응용에도 升降緩束의 妙가 있을 것이

라 하였으나 四象人穴의 선택 및 그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만 後人の 연구를 당부하였다.

이에 論者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언급된 이론을 유추하여 이에 근거한 四象針穴 선택방법과 그 운용을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1. 四象人 經絡(穴)의 선택배경

- 1) 張仲景의 六條病證
- 2) 岐伯의 足三陰三陽經病
- 3) 類經의 經絡升降
- 4) 內經 五形之人(二十五人)과 四象人經絡

• 접수일 2005년 1월 10일; 승인일 2005년 4월 1일
• 교신처 : 조황성
서울 강서구 화곡동 774-5 조한의원
Tel: +82-2-2603-8469 FAX: +82-2-2643-7315
E-mail: bangtem@hanmail.net

1) 이제마 著. 한동석 譯. 동의수세보원주석 정리회출판사, 서울, 1973:174.

2. 仲景의 六條病證과 岐伯의 足經病證에 대한 견해

- 1) 仲景의 六條病證과 岐伯의 六經病證의 한계
- 2) 經絡病證에 대한 東武의 입장 유추

3. 四象人 經絡의 선택

- 1) 岐伯의 足三陰三陽經 中 東武의 四象人 應用 經絡의 선택
 - ① 少陰人 應用經絡
 - ② 少陽人 應用經絡
 - ③ 太陰人 應用經絡
 - ④ 太陽人 應用經絡
- 2) 岐伯의 足三陰三陽經 以外의 四象人穴 선택 근거
- 3) 岐伯의 手足-六經病證과 東武의 四象病證과의 연계
 - ① 足經病證과 四象病證의 유추
 - ② 手經病證과 四象病證의 유추

4. 四象人 經絡(穴)의 운용

- 1) 升降緩束의 穴운용에 대한 전제조건
- 2) 升降緩束에 의한 四象人의 應用之穴 선택
 - ① 단일經絡
 - ② 복합經絡
- 3) 四象穴의 선택과정 例
 - ① 단일經絡 선택 시 穴의 선택
 - ② 복수經絡 선택 시 穴의 선택

5. 五輸穴 중 四象穴의 선택

- 1) 四焦에 의한 구분
- 2) 五輸穴과 四象穴의 體와 用에 의한 구분

6. 五輸穴 중 四象穴의 운용에 대한 경우의 수

II. 본 론

1. 四象人 經絡(穴)의 선택배경

한의학의 기본병증체계는 內經의 經絡病證과 張仲景의 六條病證에서 비롯된다.

- 1) 張仲景의 六條病證의 인용

仲景 以前에도 病을 논하는 방법론으로 六經陰陽의 갖대를 사용하였으므로 仲景 역시 질병의 변별기

준을 六經陰陽을 기본으로 病證을 설명하였다.

仲景의 六條病證 중 三陰病證은 모두 少陰人病證 이오, 少陽病證은 그대로 少陽人病證이오, 太陽病證과 陽明病證은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의 病證에 골고루 나타나지만 그 중 少陰人病證이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한다.

- 2) 岐伯의 足三陰三陽經病의 인용

岐伯의 足三陰三陽經病 中 足陽明과 足太陰經病은 모두 太陰人病이오, 足太陽·足少陽·足少陰經病은 모두 少陰人病이오, 足厥陰經病은 곧 少陰人病이라 하였다.

여기서 東武는 手足經病證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足三陰經病, 足三陽經病을 예시하였다. 왜 手三陰-三陽經에 대한 언급은 없을까? 이는 手經을 四象穴의 응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가정이 되며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 ① 단순히 仲景의 六條病證과 비교 시 足經만이 四象人病證과 상관이 있는 경우.

이는 足經病證만이 四象人病證과 관련성이 있고 手經病證은 일률적인 四象人病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라 가정된다.

예를 들면 足太陰脾經病證은 太陰人病證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手陽明大腸經病證은 특정 四象人病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타病證 및 여러 體質證의 複合病證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 ② 『東醫壽世保元·少陰人泛論』에 예시된 少陰人의 手陽明大腸經인 合谷穴이 中風의 치험례로 인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少陰人의 病證에 오로지 足厥陰經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는 手經病證이 四象人病證과 관련을 의미하나 아직 四象人病證과의 연계에 대한 연구가 미완성한 것이기에 그리 표현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 ③ 足經이 手·足經을 대표하여 쓰여진 경우로도 가정된다.

『靈樞·本輸篇』²⁾에 “六腑는 모두 足三陽經에서 出하여 上行하여 手經과 合해진다” 하였다. 또 “(手陽明)大腸 (手太陽)小腸은(足陽明)胃에 속한다” 하여 그 생리기능이 足陽明胃經과 밀접함을 말하고, 手少陽三焦는 委陽에서 合해지는데 이는 足太陽經

2) 홍원식 譯. 정교황제내경.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1:208.

의 別絡穴이며 三焦經의 下合穴이라 하였다.

즉 생리기능면에서 足三陽經은 手三陽經을 대표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足三陰經이 일부 혹은 전부의 手三陰經을 대표한다고 추론할 근거는 없다.

④ 傷寒病證은 足經絡病證으로만 설명 가능하다는 說.

朱肱은 『活人書』에서 “傷寒病은 足經絡으로만 傳하고 手經絡으로는 傳하지 않는다. 『素問·熱論』에도 역시 足三陰·三陽經에서만 병을 받는다 하였다.”³⁾하였다.

즉, 朱肱은 『傷寒論』을 經絡病證 입장으로 해석 시 『素問·熱論』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足三陰·三陽經으로만 해석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한편 手三陰·三陽經病證은 仲景의 六經傷寒과는 다른 유형의 疾病인 宋元明醫家의 雜病 등 (氣血病證 등)을 설명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東武의 四象病證은 傷寒病證 및 宋元明醫家의 病證을 포괄 설명하므로 당연히 足經뿐 아니라 手經도 포함할 수 있다고 가정된다. 나아가 六條와 氣血病證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일부 四象病證 등은 手經의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手足經에 대한 여러 경우 중 어느 경우인가에 따라 四象人穴의 선택범위는 달라지게 된다. 이에 論者は 手足經行의 升降과 四象病證과의 상호관계를 연계하여 四象人穴을 고찰하고자 한다.

3) 『類經』의 升降

『類經』에서 五行과 升降의 전제하에 欲升氣는 自經의 陰經을, 欲降氣는 克經의 陰陽經을 사용하였다⁴⁾. 前者가 五行의 相生·相克에 의한 升降經絡이라면, 後者는 病證의 유사성에 의한 升降經絡의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이를 四象病證의 升降에 적용하면 다음 Table 1, 2, 3과 같다.

Table 1. 類經 28卷의 欲升氣

| 欲升氣 | 用-自經의 陰經 | 穴 | | |
|-----|----------|---|---|----|
| 木氣 | 足厥陰肝經 | 木 | 井 | 大敦 |
| 火氣 | 手厥陰心包經 | 火 | 榮 | 勞宮 |
| 土氣 | 足太陰脾經 | 土 | 俞 | 太白 |
| 金氣 | 手太陰肺經 | 金 | 經 | 經渠 |
| 水氣 | 足少陰腎經 | 水 | 合 | 陰谷 |

3) 朱肱 著. 임진석 譯. 活人서. 아티전, 서울, 1998:61.

4) 張介賓 原著. 譯註 類經 제 28권. 혜동의학사, 서울, 2001:225.

Table 2. 類經 28卷의 欲降氣

| 欲降氣 | 用-克經의 陰陽經絡 | 穴 | | |
|-----|------------|----|---|-------|
| 木氣 | 手太陰肺經 | 所出 | 井 | 木 少商 |
| | 手陽明大腸經 | 所入 | 合 | 土 曲池 |
| 火氣 | 足少陰腎經 | 所出 | 井 | 木 湧泉 |
| | 足太陽膀胱經 | 所入 | 合 | 土 委中 |
| 土氣 | 足厥陰肝經 | 所出 | 井 | 木 大敦 |
| | 足少陽膽經 | 所入 | 合 | 土 陽陵泉 |
| 金氣 | 手厥陰心包經 | 所出 | 井 | 木 中衝 |
| | 手少陽三焦經 | 所入 | 合 | 土 天井 |
| 水氣 | 足太陰脾經 | 所出 | 井 | 木 隱白 |
| | 足陽明胃經 | 所入 | 合 | 土 足三里 |

Table 3. 岐伯六經의 升降에 의거하여 유추한 四象人 經絡(一部)

| 四象人 | 表病一部 | 裏病一部 |
|-----|-----------|-----------|
| 少陰人 | 升(足厥陰肝經) | 降(手陽明大腸經) |
| 少陽人 | 降(足太陽膀胱經) | 升(足少陰腎經) |
| | 降(足少陽膽經) | |
| 太陰人 | 升(足太陰脾經) | 降(足陽明胃經) |
| 太陽人 | 言及無 | 言及無 |

4) 內經 五形之人(二十五人)과 四象人經絡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서 四象病證과 岐伯의 足三陰三陽의 經絡病證間的 연계를 전제로 四象人 應用經絡을 모색했다면, 『內經·陰陽二十五人篇』⁵⁾에서는 五形인과 左右上下 手足三陰三陽의 經絡발달정도를 연계하였다. 즉 前者가 四象病證과 足經絡의 升降(緩急)을 전제로 한 접근이라면, 後者는 이와 관계없이 五行분류에 의한 동일속성의 經絡발달을 논하였다. 예를 들면 “金形之人은 五行상 金氣에 속하는 陰經의 肺經과 陽經의 大腸經이 발달하였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金經이 발달한 것은 金形人이라 칭한다’라는 주장으로, 이 논리에는 病證과 經絡의 升降이나 유사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접근 시각은 없고, 철저히 陰陽과 經絡의 五行분류 입장에서 동일한 五行속성의 人間형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或者는 金形之人은 太陽人, 木形之人은 少陽人, 土形之人은 太陰人, 水形之人은 少陰人 (火形之人은 四象人 분류에서 제외시켰음)으로 五行之人을 四象人과 동일선상에서 연결함은 ‘四象病證’은 곧 ‘經絡病證’이란 오류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五形인은 經絡발달을 기준으로 한 분류일 뿐 東

5) 홍원식 譯. 정교황제내경.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1:313.

武의 四象人과 전혀 다르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論者는 四象人의 應用穴의 모색에 '五形之人과 經絡'의 이론을 수용할 수 없었다.

2. 仲景의 六條病證과 岐伯의 足經病證에 대한 견해

1) 仲景의 六條病證과 岐伯의 六經病證(足三陰三陽病證)의 한계

앞서 동일한 四象人病證에 대하여 仲景과 岐伯의 病證을 각기 인용한 것은 仲景의 六條病證과 岐伯의 六經病證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각기 四象人病證을 설명하는 필요조건일 뿐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① 太陰人病證은 仲景의 六條病證中 太陽病證과 陽明病證이 일부 포함되거나, 또는 岐伯의 足陽明經, 足太陰經病이 모두 포함된 病證이다.

② 少陽人病證은 仲景의 少陽病證이 모두 포함되고, 太陽病證과 陽明病證의 일부가 포함되고, 또는 岐伯의 足太陽經, 足少陽經, 足少陰經病이 모두 포함된 病證이다.

③ 少陰人病證은 仲景의 三陰病證이 모두 포함되고, 太陽病證과 陽明病證이 다수 포함되고, 또는 岐伯의 足厥陰經病 전부가 포함된 病證이다.

④ 太陽人病證의 전부는 仲景과 岐伯의 足經絡病證(三陰三陽)으로 論할 수 없다.

이를 환언하여 少陰人을 예로 들면 仲景의 厥陰病만 岐伯의 足厥陰經病으로 설명 가능하고, 仲景의 太陰病, 少陰病證은 岐伯의 足三陰經, 足三陽經病(足厥陰經 제외)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太陰病의 瀉心湯證類, 蘇合元證中氣病은 手陽明大腸經(合谷)을 치험례로 들었다. 그렇다면 이는 四象人病證 해석에 대한 仲景의 六條病證과 岐伯의 經絡체계의 한계성과 동시에 六條病證과 六經體系 상호간의 異質性을 의미하며, 仲景의 病證의 일부는 手經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仲景의 六條病證이 岐伯의 六經體系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지만 그 둘 사이에 病證觀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東武가 四象人病證中 일부 病證을 이들의 기준에서 설명하였지만 이들의 잣대만으로는 四象人이 갖는 病理的 차이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고, 따라서 새로운 病證概念이 도입되기에 이른 것이다.

2) 經絡病證에 대한 東武의 입장 유추

經絡病證에 대한 東武의 견해를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① 東武는 四象人 일부의 病證을 설명하는 도구로 岐伯의 經絡病證의 인용과 그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환언하면 이는 이미 辨證의 방법론으로 穴性의 공통속성인 '經絡概念'과 '升降'은 인정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한 病證의 일부만을 인정하고 들어간 것이다.

예를 들면 足太陽膀胱經의 穴들은 太陽寒水의 특성과 膀胱系列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穴性구성 및 치료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四象人病證에 岐伯의 足三陰, 足三陽經과의 관계가 인용된 것으로 보아 經絡과 升降概念을 인정은 했으나 동시에 四象人病證 해석에 일부에만 인용된 것으로 보아 經絡病證의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② 足經絡에서 하나의 특정 經絡病證은 오로지 하나의 四象病證과 1:1로 대응된다.

즉 足陽明胃經病, 足太陰脾經病은 太陰人에서만 나타난다. 足太陽膀胱經病, 足少陽膽經病, 足少陰腎經病은 少陽人에서만 나타난다. 足厥陰肝經病은 少陰人에서만 나타난다.

太陽人病證은 어떤 足經絡病證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환언하여 예를 들면 足厥陰肝經病證이 少陰人과 少陽人 등에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각 四象人의 病證과 이에 해당하는 經絡病證의 독립성에 대한 인정(異質체질간에 경락 혼용불가의 원칙)은 특정經絡의 升降流注와 四象升降病證과의 有關성을 인정한 상태이며 일부나마 四象穴에 인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③ 四象穴의 일부는 足六經穴에 기인한다.

四象病證의 일부가 각각 足三陰三陽經絡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함은 病證의 유사성외에 治療穴로의 가능성을 유추하게 한다. 그러므로 四象穴의 선택도 일부는 四象病證에 따라 岐伯의 足六經穴이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④ 手經과 四象病證에 대한 구체적 연관성을 언

급치 않았지만 手陽明大腸經(合谷穴) 일부를 언급함으로써 운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足經의 升降의 원칙이 手經에서도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手經의 四象經絡 유추는 가능하다.

⑤ 구체적 四象穴 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經絡病證이 東武의 四象病證의 일부를 해석하는 방법은 되었을지언정, 특정 經絡상의 穴性들이 동일한 치료목적을 위해 어떤 차별적인 작용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足少陰腎經의 病證인 口燥舌卷而渴이 少陽人病의 消渴양상과 유사하나 이 病證의 治療穴이 腎經의 어느 穴인가(환언하면 이 穴의 어떤 작용이 淸陽의 上升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확인은 할 수 없다(예: 少陽人의 荊芥, 防風은 大淸胸膈散風에 의해 補陰을 이뤄 淸陽상승에 일부 역할을 한다. 等等). 이어서 淸陽上升을 위해 腎經내 하나의 穴을 사용할 것인가, 복수穴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할 수가 없다.

3. 四象人 經絡의 선택

1) 岐伯의 足三陰三陽經 中 東武의 四象人 應用經絡의 선택

穴의 선택에 유추되는 자료는 仲景의 六條病證, 岐伯의 足三陰-三陽經證이 主가 되며 東武의 간접적 치험례로 유일하게 少陰人 手陽明大腸經의 合谷穴이 제시되었다(Table 4, 5, 6 참조).

(1) 少陰人 應用經絡

“少陰人 病證藥理 張仲景 庶幾乎昭詳發明而 宋元明諸醫 盡乎昭詳發明” 『東醫壽世保元·醫原論』

그러나 經絡病證으로는 극히 일부만 설명가능하다.

① 少陰人의 中氣病 舌卷不語(중풍); 少陰人 太陰證(木香順氣散, 蘇合香元) ⇒ 手陽明大腸經의 合谷(原穴) 사용

② 煩滿 囊縮症: 少陰人 亡陽證의 太陽病厥陰證 ⇒ 岐伯의 足厥陰肝經中の 穴(自經) 사용

※ 그러나 이외의 少陰人의 病證 등(仲景의 太陽病證, 陽明病證과 少陰病證, 宋元明醫家の 病證 등)의 일부는 岐伯의 足三陰三陽經으로 유추하기 힘들고, 오히려 手三陰三陽經이나 新經絡-穴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2) 少陽人 應用經絡

“少陽人 病證藥理 張仲景 半乎昭詳發明而 宋元明諸醫 庶幾乎昭詳發明” 『東醫壽世保元·醫原論』

少陽人病證은 다른 體質보다 經絡病證으로 상당부분 설명된다.

① 少陽人 表病中 傷風初證(荊防敗毒散證); 頭項痛, 腰脊強 ⇒ 岐伯의 足太陽膀胱經中の 穴(自經)사용 또는 仲景의 太陽病證의 일부를 치료할 수 있는 穴을 선택함.

② 少陽人 表病의 傷風重證(荊防瀉白散, 荊防導赤散證); 胸脅滿 耳聾 ⇒ 岐伯의 足少陽膽經中の 穴(自經)

이는 仲景의 少陽病證 전부를 치료 할 수 있는 穴과 동일함.

③ 少陽人 裏病의 消渴證(涼膈散火湯, 忍冬藤地骨皮湯, 十二味地黃湯 및 熟地黃苦參湯證); 口燥, 舌乾而渴 ⇒ 岐伯의 足少陰經 中の 穴(自經)

※ 上記證을 제외한 少陽人 諸證(仲景, 宋元明醫家 및 東武創證)의 穴;

즉 岐伯의 六經證으로 설명할 수 없는 證 ⇒ 手經을 포함한 새로운 經絡 또는 新穴을 선택하여야 함.

a) 亡陰證(荊防地黃湯證, 猪苓車前子湯證),

b) 胸膈熱證(地黃-陽毒白虎湯證)

c) 食滯痞滿證(獨活地黃湯證) 등

(3) 太陰人 應用經絡

“太陰人 病證藥理 張仲景 略得影子而 宋元明諸醫 大半乎昭詳發明” 『東醫壽世保元·醫原論』

少陽人과 마찬가지로 經絡病證으로 비교적 다수 설명 가능함.

① 表證: 寒勝則 表證而太重證-太陰人 表證의 太陰調胃湯 加 升麻, 黃芩; 腹滿而 噤乾 ⇒ 岐伯의 足太陰經 中の 穴(自經)

② 裏證: 太陰人 裏證의 葛根解肌湯證; 身熱 目疼 鼻乾 不得臥

⇒ 岐伯의 足陽明經 中の 穴(自經)

※ 上記證을 제외한 太陰人 諸證(宋元明醫家 및 東武創證)의 穴; 岐伯의 六經證으로 설명할 수 없는 證 ⇒ 手經을 포함한 새로운 經絡 또는 新穴을 선택하여야 함.

a) 背傾表病 輕證(麻黃發表湯證) 등

- b) 肝熱肺燥證 清心蓮子湯證
- c) 虛勞證 鹿茸大補湯 拱辰黑元丹證

(4) 太陽人 應用經絡

“太陽人 病證藥理 朱震亨 略得影子而 本草 略有藥理” 『東醫壽世保元·醫原論』

岐伯의 足三陰三陽病證으로 해석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穴로는 제시할 수 없고, 手經을 포함한 새로운 經絡 또는 新穴에서 찾아야 한다.

※ 이처럼 少陽人과 太陰人의 四象人 應用經絡은 表裏病證과 연계하여 비교적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나 少陰人에 있어서는 中風과 太陽病厥陰症의 經絡만 제시하고 太陽人에 있어서는 全無

Table 4. 少陰人 應用經絡

| 四象作用 | 四象 | 五行 | 少陰人 太陽證의 陽病厥陰證 (煩滿囊縮證) | 少陰人 太陰證 (中氣病 舌卷不語) |
|------|------|----|------------------------------|-----------------------|
| | | | 足厥陰肝經 | 手陽明大腸經 |
| 補脾和脾 | 木氣 | 金 | 中封 | 商陽 |
| 健脾直脾 | 火氣 | 土 | 太衝 | 曲池 |
| 壯脾 | 金氣 | 木 | 大敦 | 三間 |
| 固脾立脾 | 水氣 | 水 | 曲泉 | 二間 |
| | (土氣) | 火 | 行間 | 陽谿 (原穴; 合谷) |

Table 5. 少陽人 應用經絡

| 四象作用 | 四象 | 五行 | 少陽人 太陽病證 (傷風初證) | 少陽人 少陽病證 (傷風重證) | 少陽人 消渴證 陰虛午熱證 |
|------|------|----|--------------------|--------------------|------------------|
| | | | 足太陽膀胱經 | 足少陽膽經 | 足少陰腎經 |
| 補腎和腎 | 木氣 | 金 | 至陰 | 崑崙 | 復溜 |
| 健腎直腎 | 火氣 | 土 | 委中 | 陽陵泉 | 太谿 |
| 壯腎 | 金氣 | 木 | 束骨 | 臨泣 | 湧泉 |
| 固腎立腎 | 水氣 | 水 | 通谷 | 俠谿 | 陰谷 |
| | (土氣) | 火 | 崑崙 | 陽輔 | 然谷 |

Table 6. 太陰人 應用經絡

| 四象作用 | 四象 | 五行 | 太陰人 表證而太重證證 (太陰調胃湯證) | 太陰人 裏證 (葛根解肌湯證) |
|------|------|----|-------------------------|--------------------|
| | | | 足太陰脾經 | 足陽明胃經 |
| 補脾和脾 | 木氣 | 金 | 商丘 | 厲兌 |
| 健脾直脾 | 火氣 | 土 | 太白 | 足三里 |
| 壯脾 | 金氣 | 木 | 隱白 | 陷谷 |
| 固脾立脾 | 水氣 | 水 | 陰陵泉 | 內庭 |
| | (土氣) | 火 | 大都 | 解谿 |

하다. 그러나 病證에 의하여 선택된 經絡 중 어느 穴을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2) 岐伯의 足三陰三陽經 以外的 四象人穴 선택근거 유사한 효능을 갖는 穴性的 집합이 특정 經絡으로命名되어졌으므로 岐伯의 足三陰三陽經을 四象體質病證과 연계하였다함은 일부이긴 하지만 四象人病證에 해당하는 經絡病證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足三陰三陽經과의 연계성이 제외된 일부 四象人病證 또는 일부 仲景 및 宋元明醫家の 病證 등)은 手三陰三陽經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少陰人의 表病證 중 太陽病厥陰證(太陽傷風 正邪相持日久)의 穴은 岐伯의 足厥陰肝經을 제외한 足三陰三陽經에서 찾을 수 없다. 이는 少陰人에 해당되는 仲景의 三陰病證과 대부분의 太陽病證과 陽明病證을 설명할 수 있는 經絡 및 新穴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선 少陰人 病證과 이에 해당하는 仲景의 病證 등을 대개 이와 유사한 手經病證과의 상관성 및 升降의 일치를 살핀 후 經絡을 선택하고 그들 내에서 穴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은 東武의 유일한 (간접)치험례에서도 볼 수 있다. 즉 少陰人의 中氣 舌卷不語(宋元明醫家)에 手陽明大腸經의 合谷을 사용 후 神效하였다 하였다. 이처럼 六條傷寒病證과 經絡病證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부 病證 등은 일부 手三陰三陽經에서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확충하면 少陰人 中風에 사용되는 蘇合香元의 효능을 단 하나의 穴인 合谷으로 대치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岐伯의 手足-六經病證과 東武의 四象病證과의 연계(Table 7, 8 참조)

전제조건; ① 유사病證 가운데 經絡의 유주방향(升 또는 降)에 의해 치료될 수 있는 四象病證의 선택.

② 足經의 病證이 四象人病證과 1:1로 대응된 것과 마찬가지로 手經 역시 1:1로 대응된다고 가정함. 즉 특정 經絡病證은 한체질에만 대응한다고 가정함.

(1) 足經病證과 四象病證의 유추

足經病證은 특정 四象病證과 겹침없이 1:1로 대응된다.

① 足陽明 胃經病(太陰人病); 太陰人 肝熱證으로 淸熱에 의해 降氣됨.

② 足太陽 膀胱經病(少陽人病); 少陽人 表病證(太陽病證)으로 淸熱에 의해 降陰됨.

③ 足少陽 膽經病(少陽人病); 少陽人 表病證(少陽傷風重證)으로 淸熱에 의해 降陰됨.

④ 足太陰 脾經病(太陰人病); 太陰人 表病證(太陰調胃湯證 등)으로 去寒濕에 의해 升提됨(呼散之氣).

⑤ 足少陰 腎經病(少陽人病); 少陽人 消渴症(下消)으로 補陰에 의해 淸陽이 상승됨.

⑥ 足厥陰 肝經病(少陰人病); 少陰人 太陽病厥陰證(만성적 소모성 太陽病證이 변하여 됨)으로 升陽이 목적인.

** 이는 四象表裏病證과 足六經證 상호간에 病證의 일치와 동시에 升絳의 일치를 만족시키고 있다. 환언하면

① 少陰人의 일부病證(太陽病厥陰症)에 足厥陰經(穴)을 이용: 升氣에 의해 치료됨

② 少陽人의 일부病證(傷風初-重證)에 足太陽經-少陽經을 이용: 降氣에 의해 치료됨
(消渴證)에 足少陰經(穴)을 이용함: 升氣에 의해 치료됨.

③ 太陰人의 일부病證(肺燥寒證)에 足太陰經(穴)을 이용함: 升氣에 의해 치료됨
(陽明病證)에 足陽明經(穴)을 이용함: 降氣에 의해 치료됨

④ 太陽人의 病證은 전혀 언급된 바 없다岐伯의 足經이론으로는 太陽人의 病證을 전혀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 手經病證과 四象病證의 유추

手經病證이 足經病證처럼 특정 四象病證과 대응된다는 전제는 없다.

그러나 東武에 의한 四象表裏升降病證과 足經의 病證-升降과의 관계가 手經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四象病證과 升降에 대응하는 手經을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a) 陰人의 表病證; 太陰人의 足太陰-手太陰, 少陰人의 足厥陰-手厥陰의 관계

b) 陰人의 裏病證에서 太陰人의 足陽明-少陰人의 手陽明의 관계

또 동일한 맥락에서

c) 陽人의 裏病證에서 太陽人의 手少陰-少陽人의 足少陰의 관계로 유추되고

d) 陽人의 表病證에서 少陽人의 足太陽-太陽人의 手太陽, 少陽人의 足少陽-太陽人의 手少陽의 관계로 유추된다.

그러므로

· 陰人(太陰人, 少陰人)의 表病과 陽人(太陽人, 少陽人)의 裏病은 升하는 手足三陰經에서 선택되고

· 陰人(太陰人, 少陰人)의 裏病과 陽人(太陽人, 少陽人)의 表病은 降하는 手足三陽經에서 선택된다.

① 手太陰 肺經病; 表病에서 肺升陽에 의해 治愈되어야 하는 肺脹滿, 喘咳⇒ 太陰人의 太陽病證(麻黃湯證-麻黃發表湯證, 麻黃定喘湯證, 背(裏)病輕證)이나 少陰人의 鬱狂初症에 해당됨. 그러나 少陽人과 太陽人의 表病은 降陰이 요구되므로 해당되지 않음.

** 上記證과 유사한 麻黃湯證(喘而胸滿者)이 太陰人의 經驗設方에 인용된 것으로 보아 太陰人의 經絡病證이라 사료된다.

② 手少陰 心經病; 升陽에 의해 治愈되어야 하는 噎乾, 心痛, 渴而欲飲⇒ 少陰人의 鬱狂中-未證과 太陰人 表寒證(麻黃定痛湯證), 少陽人의 上中消와 太陽人의 小腸病 太重證(血液俱耗 胃脘乾枯 上焦噎膈 食下則 胃脘當心而痛)에 속한다.

** 그러나 少陰人 鬱狂中證은 口燥 嗽水 不欲嚥하고 太陰人 表寒證 역시 不咽噎乾燥하므로 少陰人과 太陰人 病證은 제외되고 少陽人은 他證은 유사하나 心痛조항이 없으므로 太陽人의 病證과 유사하다고 사료된다.

③ 手厥陰 心包經病; 升陽에 의해 治愈되어야 하는 面赤, 目黃, 心中憺憺大動, 心痛, 掌中熱, 喜笑不止, 心煩, 昏倒, 眩暈 ⇒ 少陰人의 鬱狂未, 太陰人의 太陽病證을 지나서 나타나는 肺燥證(卒中風 등-牛黃清心丸)으로 유추됨.

** 少陽人과 太陽人(不實, 不虛, 不冷, 不熱) 裏病證도 升陽이 요구되므로 유추가능하나 上記證은 腎經證으로 보이며 少陰人 太陽陽明病證(候潮熱, 不識人 循衣摸床 惕而不安 微喘直視..), 少陰人 樂極不成則 喜好不定 등과 더

욱 유사하여 少陰人 經絡病證 이라 사료된다.

④ 手陽明 大腸經病; 降氣에 의해 치유 되어야 하는 齒痛, 頸腫目黃, 口乾, 衄衄 喉痺 등) ⇒ 有醫治驗例(合谷)에 의하여 유추하면 少陰人 中氣病(太陰病 輕證; 瀉心湯證 等 溫胃에 의해 降陰 됨에 유효하다. 또 太陰人 裏熱證의 輕證(葛根解肌湯證)과도 유사하나 이미 足陽明胃經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제외시킨다. 또 少陽人 胸膈熱證과도 유사하나 少陰人 간접 治驗例를 인정한다.

⑤ 手太陽 小腸經病; 降氣에 의해 治癒 되어야 하는 噎痛, 頤腫(耳聾, 目黃, 頰腫 등) ⇒ 太陽人 表病證, 少陽人의 傷風證이나 少陰人 太陰重症(茵陳蒿湯證), 太陰人 裏熱證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少陰人 太陰病은 大腸經病에서 언급되고, 太陰人 裏熱證과 少陽人 傷風證은 이미 足經에서 언급되었으므로 太陽人 表病證으로 사료된다.

⑥ 手少陽 三焦經病; 降氣에 의해 치유 되어야

하는 耳聾, 噎腫, 喉痺, 小腹硬滿, 小便不通水腫 ⇒ 少陰人의 太陰重證(寬中湯)과 少陰證 咽喉痛 獨麥官桂理中湯), 太陰人의 裏熱病證 少陽人 表病證重症(傷風重症, 亡陰證 등)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少陽人과 太陰人은 足經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또 太陽人 表病證에 上記證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건강조건에 小便多而數하고, 少陽人의 表病證이 足經證의 次序(足太陽少陽)를 이루듯 太陽人에도 동일한 논법(手太陽少陽)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少陰人은 제거되고 太陽人 表病證으로 사료된다.

4. 四象人 經絡(穴)의 운용

1) 升降緩束의 穴운용에 대한 전제조건

『醫源論』에 언급된 岐伯病證과 四象病證의 관계를 단지 ‘증상의 유사성’에 의한 상호관계를 논함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이들 經絡을 四象病證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는 명확치 않다. 그러나 足三陰三陽經의 升降과 病證의 유사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四象人 體質病證을 1:1로 연계한 것으로 보아 해당 經絡에 대한 응용을 전제하지 않았는가? 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① 手足三陰-三陽經을 대상으로 한다.

東武는 四象病證과 升降에 대응하는 經絡病證을 제시하였고, 經絡이론이 해당病證을 治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四象病證에 經絡이론을 이용한다. 즉 足三陰-三陽經과, 비록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東武의 간접 治驗例에 근거하여 手三陰三陽經의 穴들도 대상에 포함 시킨다.

② 四象表裏病證과 升降(緩束)이 동시에 일치하는 經絡을 선택한다(前述 3-3)참조).

陰人(太陰人, 少陰人)의 表病과 陽人(太陽人, 少陽人)의 裏病은 升하는 手足三陰經에서 선택되고 陰人(太陰人, 少陰人)의 裏病과 陽人(太陽人, 少陽人)의 表病은 降하는 手足三陽經에서 선택된다

③ 四象人사이의 手足經絡 혼용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經絡의 선택은 經行의 升降과 四象病證을 연계하여 선택하며 四象人에 동일經絡의 혼용은 불가하다.(東武는 足經과 四象人病證을 1:1로 대응시켰음 : <아래 2-a) 기준>. 그러나 足經에서의 원칙

Table 7. 四象人病證과 應用經絡의 升降緩束

| 病證 | 陽人 | | 陰人 | |
|----|-----------------|----------------|---------------|----------------|
| | 太陽人 | 少陽人 | 太陰人 | 少陰人 |
| 表病 | 陽經絡 - 降陰(束) ↓ | | 陰經絡 - 升陽(緩) ↑ | |
| | (手太陽小腸經 足太陽膀胱經) | (手少陽三焦經 足少陽膽經) | (足太陰脾經 手太陰肺經) | (足厥陰肝經 手厥陰心包經) |
| 裏病 | 陰經絡 - 升陽(緩) ↑ | | 陽經絡 - 降陰(束) ↓ | |
| | (手少陰心經) | (足少陰腎經) | (足陽明胃經) | (手陽明大腸經) |

Table 8. 四象人 表裏病證과 應用經絡

| 四象人 | 表裏病 | 病證 | 應用經絡 |
|-----|-----|----------|----------|
| 少陰人 | 表病 | 鬱狂初證 | * |
| | | 鬱狂中-末證 | (手厥陰心包經) |
| | 裏病 | 亡陽證 | 足厥陰肝經 |
| | | 太陰證(中氣病) | (手陽明大腸經) |
| 少陽人 | 表病 | 少陰證 | * |
| | | 太陽病證 | 足太陽膀胱經 |
| | 裏病 | 傷風證 | 足少陽膽經 |
| | | 胸膈熱證 | * |
| 太陰人 | 表病 | 消渴證 | 足少陰腎經 |
| | | 背頰表病輕證 | (手太陰肺經) |
| | 裏病 | 肺燥寒證 | 足太陰脾經 |
| | | 陽明病證 | 足陽明胃經 |
| 太陽人 | 表病 | 外感病 | (手太陽小腸經) |
| | | 內臟病 | (手少陽三焦經) |
| | 裏病 | | (手少陰心經) |
| | | | |

이 手經에서도 지켜진다는 단서는 없으나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즉, 선택된 經絡은 表病 裏病 중 하나를 만족시키며 表裏病證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않는다.

예) 少陽人 太陽病證(表病)에 膀胱經, 傷風重症(表病)에 膽經은 모두 表病에 降陰하는 經絡만을 사용하였고 이들이 타 體質의 病證에 거듭 응용되지 않았다.

④ 四象人 病證에 따라 한 經絡 또는 복수의 經絡을 사용할 수 있다 : <아래 2-b)기준>

⑤ 穴의 선택은 선택된 經絡내의 五俞穴井榮俞經合穴을 근간으로 四象穴을 설정한다.

선택된 經絡내의 穴은용 범위는 단수 또는 복수의 四象穴을 중심으로 하며 그 외의 주요 穴을 도입한다.

(특정 經絡의 모든 穴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 五俞穴이 질병의 大綱을 치료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이를 중심으로 四象穴을 선택한다. 五俞穴의 原穴, 十五絡穴, 背俞穴, 募穴, 八會穴, 交會穴 등과의 관계는 향후 연구대상임)

2) 升降緩束에 의한 四象人의 應用之穴 선택

四象人 病證치료의 목표는 升降緩束을 조절하는데 있다.

東武는 四象人의 應用要藥에도 그러하듯이 應用之穴에도 반드시 升降緩束之妙가 있을것이라 確言(應用之穴而 必有 升降緩束之妙) 하였다.

즉 四象人에 따른 藥物의 四氣와 치료목적의 歸經은 대체로 太陽人은 涼性(肝經), 太陰人은 溫性(肺經), 少陰人은 熱性(脾經), 少陽人은 寒性(腎經)으로 구분하고 처방의 구성은 먼저 약성의 溫熱涼寒이라는 공통속성 내에서 藥物 각각의 상호배합 작용에 의해 保命之主의 升降緩束을 조절한다.

『東武本草遺稿』에 의한 藥物의 補*和*, 健*殖*, 消*痰, 收斂*元 등과 같은 기능은 四象病證에 따른 升降緩束을 조절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少陽人의 傷風初證에 필요한 降陰조건은 上中下焦의 解鬱에 있으며 이를 위한 藥物구성이 이루어진다. 四象人穴方의 구성에도 그와 같은 법칙이 존재한다고 추측된다. 즉 藥物과 같이 針의 응용에서도 단수 혹은 복수의 특정 經絡이 선택된다면 病證과 升降의 일치라는 관점에서 선택된

足太陽膀胱經 등 내에서 上中下焦의 解鬱에 필요한 단일, 또는 복합穴의 선택을 가정 할 수 있다. 즉 荊芥, 荊芥+防風 등의 역할을 하는 穴, 柴胡, 前胡 등의 역할을 하는 穴, 生地黃 地骨皮 등의 역할을 하는 穴, 또는 解鬱에 합당한 복합효능을 갖는 穴 등을 유추하여 穴處方 이 가능하다.

즉 四象穴方 선택의 대전제는 本草의 약성이 溫熱涼寒의 氣味에 의하여 四象人 藥物이 구별되듯이 선택된 단수 혹은 복수 四象應用 經絡內의 各穴에도 ‘穴性’에 의한 ‘四象人의 應用穴’이 있고, 이에 대해 病證에 따른 升降緩束에 의한 穴의 선택과 次序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 四象人 應用穴에 대한 東武의 제시는 일부 四象病證과 足三陰三陽經證을 기준으로 한 상호 관련성만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六經과 관계되지 않는 新穴을 찾기에 앞서

① 이미 제시된 四象病證에 해당되는 六經(足三陰三陽經)중 四象인 經絡穴의 선택과

② 더 나아가 四象病證 중 岐伯六經病證으로 설명되지 않는 仲景六條病證과 宋元明 및 기타病證에 해당하는 經絡(穴)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고(手三陰三陽經을 포함)

③ 이런 과정을 통한 經絡들로서 病證의 升降緩束에 의한 穴의 조합이 재차 구성되어야 한다.

이처럼 東武公은 부분적으로나마 四象病證을 설명하는 도구로 穴位(穴性)의 계통적 분류인 經絡病證을 인정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經絡내에 어떤 穴을 선택하여야 하는가?”이다.

예를 들면 少陽人表病-傷風重症인 胸脅痛而耳聾에 사용 經絡과 穴은?

岐伯의 足太陽-少陽-少陰經病은 少陽人病이라 하였다. 즉 이들만이 (手)足六經病證 가운데 少陽人의 病證과 유사한 해당 經絡病證임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여 이를 少陽人 經絡이라 한정하여 단언하기는 어렵더라도 升降과 病證의 일치라는 관점에서 선택되어졌으므로 이를 四象인 經絡에 응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少陽人病證 중 荊防敗毒散證(降陰)은 足太陽膀胱經病證(降氣)과 유사하고 荊防導赤散證이나 荊防瀉白散證(降陰)은 足少陽膽經病證(絳氣)

과 유사하다. 그런데 이들 病證에 대한 穴의 선택은 전적으로 이들 經絡내에서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들 經絡들을 포함한 기타 經絡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한 穴의 선택을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a) 단일 經絡(오로지 특정 病證에 특정 經絡만 동원될 경우)

少陽人의 少陽傷風初證에 오로지 膀胱經을 사용하여야 하고 傷風重證에 오로지 膽經을 사용하고 消渴證에 오로지 腎經을 사용하는 경우다.

만약 消渴證에 腎經만을 사용 시 自經내의 穴로만 升降緩束을 이루어야 하므로 解鬱시키는 荊芥, 防風의 효과를 가진 穴, 또는 補陰시키는 熟地黃, 山茱萸의 효능을 지닌 穴, 그 외에 玄蓼, 地骨皮의 효능을 가진 穴 등이 필요하다. 또는 이들 여러 효능을 복합적으로 발휘하는 穴이 존재할지 모른다 (특정 藥物과 1:1로 대응하는 특정 穴도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몇 가지 藥物의 효능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穴로서 대응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하나의 藥物 효능이 여러 穴의 기능을 포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少陰人 中氣證의 蘇合香元, 木香順氣散 대신에 楸谷 穴로써 대신하였다).

즉 이 경우에 升降緩束을 이루기 위해 한 두개의 穴이든 여러 개의 穴이든간에 腎經絡의 특정 穴은 그 經絡내에서만 독립된 작용과 동시에 補陰에 대한 필요충분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 결과 결코 타 經絡의 穴들과 배합 시 그 작용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b) 복합 經絡(該當 經絡 穴뿐 아니라 他 經絡 穴들도 동원될 경우)

이는 앞의 少陽人 病證에 해당하는 足 經絡 病證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라 볼 수 있다.

傷風初證의 荊防敗毒散證이나 傷風重證의 荊防導赤散證은 經絡上으로는 각각 足太陽膀胱經이나 足少陽膽經 내의 相異한 穴을 사용한다.

그러나 方劑와 마찬가지로 穴의 처방도 치료 목표를 위한 복합기능이 요구됨을 가정한다면 하나의 該當 經絡의 穴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少陽人에 해당하는 經絡들(膀胱經, 膽經, 腎經 내에서의 穴들

간에 조합 필요성이 요구된다. 즉 a)가 단일 經絡이 病證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구비하였다고 가정한다면, b)는 복합 經絡이 病證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일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앞의 두 처방의 약제는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前胡, 生地黃 등이 공통된다 또 消渴證(下消)의 十二味地黃湯의 구성은 荊芥, 防風, 車前子, 玄蓼 등의 荊防敗毒散·導赤散제의 일부가 사용된다. 이는 한 처방에도 경우에 따라 傷風初 또는 重症에 사용되는 약제와 補陰약제가 清陽上升을 목적으로 하여 여러 복합적 기능이 동원된다.

또 한 예로 少陽人 消渴證에 十二味地黃湯을 사용한다. 만약 전술한 病證과 經絡이 1:1 대응 관계라면 足少陰腎經만으로 필요충분하다. 그러나 少陽人 藥物과 관련 經絡 穴의 작용을 관련하여 가정해 보면 補陰에 관련된(熟地黃, 山茱萸의 효능 → 升清陽) 腎經 穴과 解鬱에 관련된(荊芥, 防風 → 降陰) 太陽經 穴과 그 외의 藥物 효능을 대신할 經絡 穴들을 가정할 수 있다. 환언하면 病證에 따라 升清陽 또는 降陰시키는 복수 經絡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藥物에 對應하는 穴을 여러 공통된 속성의 他 經絡에서 선택할 경우에 岐伯의 病證(升降病證)뿐 아니라 仲景의 六條病證, 宋元明醫家の 氣血病證, 더 나아가 東武公의 四象病證 등과 연계될 四象人 穴 선택 폭이 비교적 확대될 수 있다.

이처럼 四象인의 取穴은 a)는 단일 經絡(足 經絡 중심 사고에서 나온 것이고, b)는 복합 經絡(方劑 중심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a) 또는 b)의 어떤 경우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들 각각의 사고를 종합적 입장에서 묶어 생각하면 東武의 四象 經絡의 선택은 특정 經絡을 實體質에만 1:1로 대응한 것으로 보아 升降과 病證에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키는 입장에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四象 病證에 따른 應用 穴들의 최종구성은 이들 선택된 단일 혹은 복수 經絡들 내에서 穴性(작용)에 의해 取穴된 穴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방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四象人 經絡의 선택폭과 선택된 그들 내에서 穴들의 작용을 알아야 四象人 應用 穴이 구성되어질 것이다.

3) 四象穴의 선택과정 (例6)

먼저 穴의 선택순서(단수 혹은 복수 經絡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가정해 본다.

① 經絡의 升降과 四象病證에 의하여 四象人 해당 經絡 선택

② 해당 經絡내에서 上焦, 中焦, 下焦의 解鬱과 補陰, 升陽 등에 해당하는 穴의 선택 및 조합

③ 病證의 변화에 따른 동일계통 四象穴의 加減
예)** 少陽人의 消渴證의 치료는 陰清之氣의 上升力의 다소에 따라 달라진다.

치료의 대전제는 補陰이지만 그 방법은 상이하다. 上消→中消→下消로 진행될수록 治法은 清裏熱단계(上焦火 제거→中焦火 제거→下焦火 제거)에서 補陰으로 변화한다. 東武가 제시한 少陽人과 유관한 四象 經絡은 足經의 膀胱經, 膽經, 腎經뿐이다. 四象穴 선택의 경우수를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일 經絡 선택 시 穴의 선택

荊防敗毒散證 → 膀胱經, 荊防導赤散證 → 膽經, 消渴證(下消證) → 腎經 등을 사용할 경우다.

이는 특정 病에 특정 단일 經絡이란 전제하에 출발한다. 一例로 下消의 사용 經絡이 腎經만으로 필요충분하다고 가정하면 선택된 腎經중 補陰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穴을 선택하여야하나?

a) 첫째

單穴의 사용경우라면 五俞穴 중 水穴에 속하는 陰谷인가? 아니면 四象(太少陰陽)중 固腎立腎 개념하의 陰谷인가? 혹은 湧泉, 太谿, 復溜 중 어느 것을 선택 할 것인가? 또는 五俞穴 중 조절개념으로 土穴(五行上 火穴)의 선택인가? 또는 手陽明經의 原穴(合谷)을 用한것처럼 原穴(太谿)을 선택 할 것인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四象本草 정신을 빌리면 少陽人의 기능 정상화는 水氣를 固하게 하는데 있으므로 선택된 經絡 중 四象의 水氣를 刺한다는 가정 하에 少陰人은 火穴, 太陰人은 木穴, 太陽人은 金穴을 선택할 수도 있다.

b) 둘째 : 선택된 하나의 經絡(腎經)내에서 복수穴 사

6) 앞의 2)에대한 설명을 부연함.

용 경우

腎陰氣의 보충 및 上升을 유도하기 위한 穴조합의 구성 원칙은 어떻게 규정할까? 즉 이는 단일 經내에서 선택된 여러 穴들에 의한 升降緩束의 조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陰谷+湧泉, 或 陰谷+湧泉+太谿, 或 陰谷+湧泉+太谿+復溜 이외에 湧泉+太谿, 湧泉+太谿+復溜, 太谿+復溜, 등 가운데 어느 경우가 清陽上升의 필요충분조건일까?

c) 셋째 : 五俞穴을 무시한 경우

실제 四象病證과 유사한 經絡이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五俞穴의 木火土金水(또는 四象穴의 木火金水)의 효능이 규칙적인 차별성과 연계성을 갖고 四象病證과 연계할 수 있다면 이들 穴에 의해 四象病證을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필요충분한 규칙성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五俞穴의 기능을 무시하고 실제 穴효능에 기준한 四象藥物 효능과의 유사성을 살핀 후 穴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穴선택의 범위는 1) 五俞穴을 무시한 기타穴도 포함, 2) 절충안으로 五俞穴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補*和, 健*直, 壯*內外守, 固*立 등의 중요穴로 인식하고 나머지 기능의 穴들은 이 기능들을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穴선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2) 복수 經絡 선택 시 穴의 선택

이는 특정 病에 단일 經絡이란 개념은 무시되고 方劑중심 사고에서의 穴의 선택(복합 經絡의 응용)일 경우다.

a) 첫째 : 어떤 經絡들을 선택할 것인가?

예로 少陽人 四象方劑의 구성은 保命之主(陰清之氣)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病證의 輕重에 따른 方劑의 次序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熟地黃의 다양한 藥力은 陰清之氣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補腎和腎이란 기능으로 대표한다. 그리고 病證의 변화에 따라 熟地黃의 용량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에 상응하여 타藥物의 종류와 용량도 변화한다. 즉 東武의 方劑는 保命之主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藥物의 효능을 규정하는데서 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東武는 이에 대한 필수적인 20여 가지 藥의 효능을 제시하고 각각에 四象인 藥物을 배치하였다(太陽人은 예외지만 미루어 예

Table 9. 東武藥性歌를 근거로 유추한 少陰人 穴性歌

| 効能 | 藥物 | 主關與處方 | 類似作用經絡 | 類似代表穴 | 主作用 |
|------------|-------------|---------|--------|--------|---------------|
| 補脾和脾 | 人蔘 | 獨蔘八物君子湯 | 手厥陰心包經 | 內關 | 寧神和胃 |
| | (吳茱萸) | 人蔘吳茱萸湯 | 足厥陰肝經 | 太衝, 曲泉 | 疏泄下焦濕熱 |
| 消脾痰 | 半夏 | 木香順氣散 | 手陽明大腸經 | 二間, 三間 | 泄邪熱, 利咽喉, 調脾氣 |
| 開脾之胃氣而消食進食 | 香附子, 木香(枳角) | 木香順氣散 | 手陽明大腸經 | 陽谿, 曲池 | 利關節, 去風濕, 調氣血 |
| | 麝香 | 蘇合香元 | 手陽明大腸經 | 合谷 | 發表解熱, 疏散風邪 |

Table 10. 東武藥性歌를 근거로 유추한 少陽人 穴性歌

| 効能 | 藥物 | 主關與處方 | 類似作用經絡 | 類似代表穴 | 主作用 |
|----------------|----------------|------------|-----------------|----------|------------------------------|
| 補腎和腎 | 熟地黃 | 荊防, 十二味地黃湯 | 足少陰腎經 | 復溜 | 利導膀胱, 滋腎潤燥 |
| 健腎直腎 | 山茱萸 | 荊防, 十二味地黃湯 | 足少陰腎經 | 太谿 | 滋腎陰, 退虛熱, 壯元陽 |
| 壯腎之力 | 知母 澤瀉 木通 | 荊防導赤散, 瀉白散 | 足少陽膽經 | 俠谿 | 清熱, 息風 (血分 작용-乳腫, 月水不調) |
| 固腎立腎 | 茯苓 | 荊防, 十二味地黃湯 | 足少陰腎經 | 陰谷 | 利導下焦, 滋腎清熱 |
| 開腎之胃氣 而消食進食 | 生地黃 | 荊防敗毒散 | 足太陽膀胱經 | 通谷 委中 | 口苦, 食不和 또는 清血泄熱, 去風濕 |
| | 獨活 | 荊防敗毒散 | 足太陽膀胱經 | 至陰 | 下焦氣機 強壯 |
| (大清胸膈散風) | 荊芥 防風 | 荊防敗毒散 | 足太陽膀胱經 | 京骨 崑崙 | 去風疏邪 寧心清腦 또는 去太陽經邪, 理胞宮滯血 |
| | 柴胡, 前胡 | | 足太陽膀胱經 足少陽膽經 | 垢墟 臨泣 | 去半表半裏之邪, 清肝膽, 化濕熱 |

측 가능함). 위에서 腎陰氣의 補充 및 上升을 유도하기 위해 補陰劑인 熟地黃 뿐만 아니라 上中下焦의 解鬱劑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같은 논법으로 穴 선택도 補陰에 관련된 腎經뿐 아니라 少陽人에 제시된 膀胱經, 膽經 등의 선택과 이어 穴 선택 조합이 이루어짐을 가정할 수 있다. 복합經內에서 선택된 穴들에 의한 升降緩束의 조합).

예) 少陽人에서 足經 中 기타의 經絡은 채택될 수 없다.

- ① 荊防敗毒散證-- 膀胱經 主
- ② 荊防導赤散證--- 膀胱經+ 膽經 主
- ③ 消渴證- 膀胱經+(膽經+ 腎經 主

b) 둘째: 선택된 복수經絡중 어떤 기준으로 穴을 선택할 것인가?

복수經絡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五俞穴(四象穴)을 선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少陽人과 관계된 膀胱經, 膽經, 腎經

穴 등의 효능을 東武本草의 補*和, 健*直, 壯*內外守, 固*立, 消*痰 등과 같이 최소 20여 가지의 효능에 대응 배치할 수 있다면 病證에 따른 加減 등을 비롯한 四象穴의 운용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특정經絡과 經穴의 관계에서 볼 때 經絡(升降病證)내의 穴性이 일정 계통을 이루고 이들 각자의 穴이 升降(緩束)을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治療效果를 발휘한다 할 수 있다.

즉 東武藥性歌와 같은 개념의 東武穴性歌가 존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Table 9, Table 10).

결국 四象穴의 운용은 첫째; (단일經絡시) 五俞穴에 의한 四象穴의 접근과, 둘째; (복수經絡시) 穴 성가에 의한 四象穴의 접근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5. 五俞穴 중 四象穴의 선택

앞에서 일부病證에 四象인 經絡이 유추된다 하여도 穴 선택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經絡내의 모

Table 11. 부위를 기준으로 四象과 五輸穴-上肢의 구분

| 四象 | 五輸 | 部位 | 穴 | | | | | | |
|----|----|------|---------|--------|--------|--------|--------|--------|--------|
| | | | 手三陰經 | | | 手三陽經 | | | |
| | | | 肺 | 心包 | 心 | 大腸 | 三焦 | 小腸 | |
| 木 | 太陽 | 井 | 指骨, 中手骨 | 少澗 | 中衝 | 少衝 | 商陽 | 關衝 | 少澤 |
| 火 | 少陽 | 榮(俞) | 手筋骨 | 魚際(太淵) | 勞宮(大陵) | 少府(神門) | 二間(三間) | 液門(中郛) | 前谷(後谿) |
| 金 | 太陰 | 經 | 桡骨, 尺骨 | 經渠 | 間使 | 靈道 | 陽谿 | 支溝 | 陽谷 |
| 水 | 少陰 | 合 | 上腕骨 | 尺澤 | 曲澤 | 少海 | 曲池 | 天井 | 小海 |

Table 12. 부위를 기준으로 四象과 五輸穴-下肢의 구분

| 四象 | 五輸 | 部位 | 穴 | | | | | | |
|----|----|------|---------|--------|--------|--------|--------|--------|--------|
| | | | 足三陰經 | | | 足三陽經 | | | |
| | | | 脾 | 肝 | 腎 | 胃 | 膽 | 膀胱 | |
| 木 | 太陽 | 井 | 趾骨, 中足骨 | 隱白 | 大敦 | 湧泉 | 厲兌 | 竅陰 | 至陰 |
| 火 | 少陽 | 榮(俞) | 足筋骨 | 大都(太白) | 行間(太衝) | 然谷(太谿) | 內庭(陷谷) | 俠谿(臨泣) | 通谷(束骨) |
| 金 | 太陰 | 經 | 脛骨, 腓骨 | 商丘 | 中封 | 復溜 | 解谿 | 陽輔 | 崑崙 |
| 水 | 少陰 | 合 | 大腿骨 | 陰陵泉 | 曲泉 | 陰谷 | 足三里 | 陽陵泉 | 委中 |

은 穴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 治效면에서 五行 속성을 대표하는 五俞穴을 대상으로 하였다. 만약 五俞穴을 무시할 경우 穴선택의 범위는 확대되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응용 시 첫째는 四焦와 五俞穴간의 해부학적 입장에서의 구분과, 둘째는 五行과 四象의 기능적 구분인바, 어느 입장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 四象穴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1) 四焦에 의한 구분(Talbe 11, 12)

五俞穴의 존재 및 기능은 인정하나 기존의五行 속성은 무시하여 肘-膝關節이하를 臟腑의 縱的 橫的구분과 동일하게 四焦란 구분에 의해 四象屬性(木火金水)으로 재배치한다. 즉 四象에서 軀幹五臟과 六腑의 上下와 前後를 縱的기준으로 그 象을 木氣(太陽), 火氣(少陽), 金氣(太陰), 水氣(少陰)로 四等分하였듯이 五俞穴의 위치인 肘-膝關節 以下도 四等分으로 재구성 한다. 이때 陰經과 陽經사이의 四象(木火金水)의 구분은 동일해지며 四象의 효능을 어떻게 규정지를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2) 五俞穴과 四象穴의 體와 用에 의한 구분

(Table 13, 14, 15)

『靈樞-九鍼十二原』⁷⁾에 四肢末端으로 부터 肘膝

關節以下에 이르기까지 脉氣의 小大深淺,遠近 등을 기준으로 木火土金水의 五俞穴들을 배치하였다. 이 같은 부위와 기능간의 구분은 四象醫學의 臟腑기능과 해부학적 四焦간의 縱的 구분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四象穴의 선택 시 五俞穴의 脉氣, 主治證이나 五行屬性(木火土金水)을 四象(木火金水)과 어떻게 연계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당면한다⁸⁾.

이에 대해 東武는 五行屬性을 體로 보아 四象의 用的 입장으로 재편한다. 즉 五行에 기반한 五俞穴의 肝木, 心火, 脾土, 肺金, 腎水가 四象에서 肺木, 脾火, 肝金, 腎水로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五行이 의미하는 바를 四象의 의미로 재해석할 경우 ; 脾心사이의 火, 土의 선택여부와 心の 취사문제, 肺

7) 홍원식 譯. 정교황제내경.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1:205.
 8) 이재동 공편. 중국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서울, 1997: 247, 248
 1153년 금나라의 임명광에 의해 저술된 子午流注鍼經 素問, 難經의 영향을 받음에 의하면 ① 陰經의 井穴은 木陽經의 井穴은 金, 陰經의 榮穴은 火, 陽經의 榮穴은 水 등의 說 ② 膽經과 肝經은 木에 속하므로 그 井穴은 木에 속하고, 小腸과 心經은 火에 속하므로 그 井穴은 火에 속한다(이하 榮, 俞, 經, 合, 原 등도 相生의 순서로 배열됨) 子午流注鍼經에서는 후자를 압도적으로 사용함.

Table 13. 四象과 五俞穴

| 四象效能 | 四象 | 五行 | 手足陰經絡 | 手足陽經絡 |
|--------|------|-----|-------|-------|
| 補*和 | 木氣 | 金 | 經 | 井 |
| 健*直 | 火氣 | 土 | 俞 | 合 |
| 壯* | 金氣 | 木 | 井 | 俞 |
| 固*立 | 水氣 | 水 | 合 | 榮 |
| (조절기능) | (土氣) | (火) | (榮) | (經) |

Table 14. 四象과 五俞穴(陽經)

| 四象 | 五行 | 手三陽經 | | | 足三陽經 | | | |
|------|-----|------|----|----|------|-----|----|----|
| | | 大腸 | 三焦 | 小腸 | 胃 | 膽 | 膀胱 | |
| 木氣 | 金 | 商陽 | 關衝 | 少澤 | 厲兌 | 竅陰 | 至陰 | |
| 火氣 | 土 | 曲池 | 天井 | 小海 | 足三里 | 陽陵泉 | 委中 | |
| 金氣 | 木 | 三間 | 中渚 | 後谿 | 陷谷 | 臨泣 | 束骨 | |
| 水氣 | 水 | 二間 | 液門 | 前谷 | 內庭 | 俠谿 | 通谷 | |
| (土氣) | (火) | 陽谿 | 支溝 | 陽谷 | 解谿 | 陽輔 | 崑崙 | |
| | | 原穴 | 合谷 | 陽池 | 完骨 | 衝陽 | 垢墟 | 京骨 |

Table 15. 四象과 五俞穴(陰經)

| 四象 | 五行 | 手三陰經 | | | 足三陰經 | | | |
|------|-----|------|----|----|------|----|----|----|
| | | 肺 | 心包 | 心 | 脾 | 肝 | 腎 | |
| 木氣 | 金 | 經渠 | 間使 | 靈道 | 商丘 | 中封 | 復溜 | |
| 火氣 | 土 | 太淵 | 大陵 | 神門 | 太白 | 太衝 | 太谿 | |
| 金氣 | 木 | 少商 | 中衝 | 少衝 | 隱白 | 大敦 | 湧泉 | |
| 水氣 | 水 | 尺澤 | 曲澤 | 少海 | 陰陵泉 | 曲泉 | 陰谷 | |
| (土氣) | (火) | 魚際 | 勞宮 | 少府 | 大都 | 行間 | 然谷 | |
| | | 原穴 | 太淵 | 大陵 | 神門 | 太白 | 太衝 | 太谿 |

肝사이의 木과 金이 서로 변환이 문제가 된다. 이는 脾土의 본질적 속성이 火로 바뀌고, 肺의 본질적 金의 속성이 木으로, 肝의 본질적 木의 속성이 金으로 바뀐다. 또 心이 갖는 본질적 火의 속성은 土의 속성으로 바뀌어 四象에서 제외된다. 즉 四象에서 心의 의미는 木火金水를 주재(조절)하는 입장이므로 土의 성질과 유사하다고 사료된다.

그런 의미에서 針法에서 체질별 心(土屬性: 조절자)만을 사용하여 다스리는 법이 존재할 수 있고, 肺脾肝腎의 穴(木火金水의 穴)로 다스리는 법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四象(事心身物)중 事木, 心火, 身金, 物水을 陰經과 陽經의 五行속성과 연계하여 取穴한다. 이와 같은 논거에 의해 五行의 金氣는 四象의 事(補*和)인 木氣의

象으로 陰經의 經穴, 陽經의 井穴이 해당된다.

그 이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3).

(*한편 五行의 火氣의 象은 陰經의 榮穴, 陽經의 經穴이 해당되며 조절기능으로 가정해 본다.)

6. 五俞穴 중 四象穴의 운용에 대한 경우의 수

四象人 病證에 대응하는 各經絡의 穴들의 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① 五俞穴에 근거한 四象穴(木火金水)의 운용
- ② 조절자로서 五俞穴 중 土氣(心: 五行속성중 火)의 운용
- ③ 東武治驗例에 근거한 四象經絡 중 原穴의 운용
- ④ 四象穴 중 自經의 保命之主를 극대화하는 穴의 운용
(少陰人의 火穴, 少陽人의 水穴, 太陰人의 木穴, 太陽人의 金穴 사용)
예) 少陽人 太陽病에 足太陽膀胱經의 四象穴 중 水穴: 通谷
太陰人 肺燥寒證에 足太陰脾經의 四象穴 중 木穴: 商丘

III. 결론

十二經을 중심으로 한 四象人鍼穴선택의 방법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으로 살펴보았다.

1. 經絡과 四象人
『內經』의 五形인과 經絡의 발달관계는 五行분류에 의한 동일속성의 經絡발달을 논하였다면 東武에 제시된 足經과 四象病證의 관계는 病證과 經絡의 升降(緩束)이란 측면의 접근으로 사료된다.
2. 手三陰三陽經의 모색
四象病證 중 岐伯六經病證으로 설명되지 않는 仲景六條病證과 宋元明 및 기타病證에 해당하는 經絡의 선택은 手三陰三陽經에서 모색 가능하다(東武의 手陽明大腸經의 언급).
3. 四象人사이의 手足經絡 혼용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東武에 제시된 足經絡의 선택은 四象表裏病證과 升降(緩束)이 동시에 일치하는 經絡이며, 하나의 특정 經絡病證은 오로지 하나의 四象病證과 1:1로 대응하므로 手經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

4. 四象表裏病證과 升降(緩束)이 동시에 일치하는 經絡을 선택한다(表裏升降緩束).

陰人(太陰人, 少陰人)의 表病과 陽人(太陽人, 少陽人)의 裏病은 升하는 手足三陰經에서 선택되고, 陰人(太陰人, 少陰人)의 裏病과 陽人(太陽人, 少陽人)의 表病은 降하는 手足三陽經에서 선택된다

5. 五俞穴의 四象의 借用(體와 用).

穴의 선택은 四象人 病證에 대응하는 단일經絡 또는 복수經絡내의 五俞穴(井榮俞經合穴)을 중심으로 하며, 五俞穴(五行)의 四象의 借用은 四焦에 대한 體的 區分(해부학적)과 四象穴의 用的 區分(事心身物)에 의한 구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

6. 四象穴의 운용은 다음과 같이 접근가능하다.

- ① 단일經絡 사용 시 五俞穴에 의한 四象穴(用的)의 접근.
- ② 복수經絡 사용 시 穴性歌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 ③ 조절자로서 四象穴 중 土氣(心: 五行속성 중 火)의 운용.

④ 東武治驗例에 근거한 四象經絡 中原穴의 운용.

⑤ 四象穴 중 自經의 保命之主를 극대화하는 穴의 운용.

IV. 참고문헌

1. 이제마 著. 한동석 譯. 동의수세보원주석 성리회출판사, 서울, 1973:174
2. 홍원식 譯. 정교황제내경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1:313.
3. 주광 著. 임진석 譯. 활인서. 아티진, 서울, 1998:61.
4. 장개빈 原著. 譯註 類經 제 28권. 해동의학사, 서울, 2001:225.
5. 최용태 共著. 정해침구학. 행림서원, 서울, 1974: 878.
6. 이재동 公편. 중국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서울, 1997:247-248.

K C I